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총연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주께서 보내신 영혼을 품고
교구별 태신자 초청전도잔치

10월 중 · 하순에 걸쳐 계속될 예정.

10월 중 · 하순에 걸쳐 대부분의 교구에서는 교구별 태신자 전도잔치를 실시하여 상당수의 태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초청할 예정이다. 전도위원회는 연초에 '태신자 전도'를 골자로 하는 1999년도 전도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교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교구별 태신자들을 확보하고, 전도의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 교회 주변 집중전도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교구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아끼지 않았고, 교구에 따라서는 이미 태신자 초청전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당초, 전도위원회는 이러한 전도의 불꽃이 10월말에 실시하는 전교회적인 초청전도집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이미 교구별로 태신자 품기 운동이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초청전도잔치를 교구별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중론이 형성되면서 교구별로 실시기로 한 것이다. 곧, 대규모 전도집회에 따른 결례해 행사와 사람 동원식의 전도행사를 지양하

고 전도운동이 교구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배려한 것이다.

현재, 교구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교구별로 적게는 50여명, 많게는 300명 정도의 태신자 명단이 확보되어 있으며, 따라서 급변에 실시되는 전도잔치에 초대되는 태신자들은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부분의 교구들은 교회를 집결 장소로 하여 초청잔치를 통해 전도집회를 가질 예정이나, 토요일 이후, 저녁시간을 이용, 기도원에서 영성훈련을 겸한 태신자 초청집회를 실시하기 위해 준비하는 교구도 있다.

성도들은 기존에 실시되어온 총동원 전도잔치 등에서 나타난 거품 숫자들이 사라지고, 태신자 초청집회가 오히려 '영혼 사랑의 운동',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기 운동'으로 승화되고 성숙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잘 알파고 같은 회심자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도록 관심을 가지고 힘써 참여하며 뜨겁게 기도해야 하겠다.

기도원 공사로
교구 영성훈련 일정 조정
기도원 화,금 집회는 계속

기도원 건물보수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매주 화요일로 일정이 잡힌 교구 영성훈련은 교구에 따라 다소 조정될 예정이다.

기도원 공사는 주로 본당 지하와 바닥교체 공사로 바닥을 철거한 후 다시 방수처리를 하고 온돌을 보수하는 공사다. 그리고 난방공사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본당 지하는 당분간 사용할 수 없고 본당은 효묘 산상집회로 사용되기 때문에 불가불 교구 영성훈련이 일정을 조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화요일 낮과 금요일 밤에 진행되는 산상집회는 계속 진행된다.

하반기 구역장 영성훈련
교구별 모임장소

매주 수요일 1부예배 후 실시되는 교구별 구역장 영성 훈련 장소가 아래와 같이 정해졌다.

교구	장소	교구	장소
1	호산나홀	10	배다니홀
2	교육관 205호	11	야랑부실
3	교육관 314호	12	영아부실
4	갈릴리홀	13	교육관 201호
5	나사렛홀	14	아넌홀
6	임마누엘홀	15	교육관 414호
7	교육관 301호	16	교육관 307호
8	교육관 109호	17	할렐루야홀
9	교육관 212호		

학원전도회
말씀만이 그들을 새롭게 합니다

학원전도회에서는 대방중학교 1·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실시하는 성경교육에 본 교회의 교역자(김윤식 전도사, 김성경 전도사, 염현인 전도사)를 파견하여 본 교회 학원전도의 새 장을 모색키로 하였다.

강력한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학교에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배려한 이러한 기회들이 더욱이 열려서 가장 귀중한 변화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12대 안수집사, 40대 권사
피택자 고시 및 면접
10월 2일

지난 4월 4일부터 시작하여 매주일 저녁 실시된 피택자 교육이 오늘 끝난다.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들은 그 동안 헌법, 직분과 교회 봉사, 신앙 상식 등 여러 과목의 강의를 통해 교육을 받고 공집회 참석, 성경 읽기, 필독서 읽기 등 두루잡 제출하기 등의 과제를 통해 신앙 점검을 받아왔으며, 이제 10월 2일(토) 고시 및 면접을 통해 마지막 판문을 통과하게 된다.

이날 진행되는 순서는 경건회 및 필담고사(신구약 성경, 헌법 및 상식), 그리고 면접 등이며, 시간은 오후 2시, 장소는 교육관 307호이다. 성도들은 이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또한 교회 각 부서와 기관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요긴하게 쓰이는 그릇들이 되도록 격려해야 하겠다.

외선부 교재 번역

외선부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양육을 위하여 외선부에 출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국어로 성경교재를 번역하고 찬양테이프를 제작 지원하고 있다.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인도어 등으로 교재를 번역하고 현지 언어로 부르는 찬양을 제작하는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양육됨으로 현지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이 끊이지 않아야 하겠다.

교정전도회
장호원 군교도소집회

교정전도회는 21일(화) 장호원 군교도소(회방대)에서 집회를 갖고 수용자 250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 한편 지난 18일(토)에는 춘천소년원 가위타자관 및 생활관 원생관 200여명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으며 이들 중 180여명이 결신하는 은총이 임하기도 하였다.

교정전도회는 여러 교도소 및 감호소 등에서 매주 계속되는 소그룹 집회들과 전도집회들을 통해 수감자들이 스스로를 사회적 범죄자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분발이 일어나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15교구 이미용전도

15교구는 지난 16일(목) 원주 반석교회에서 이미용전도를 실시하였다. 의뢰전도를 겸한 이미용전도를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들은 현재 계속 펼쳐져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10월의 주요행사

6일 - 정기당회 10, 17일 - 세례문답 및 교육
24일 - 제5차 학습세례식 31일 - 종교개혁주일
10월 중 - 강로수련회, 교역자수련회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취임



김 장 인 목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고 순종하라

(이사야 48장 9-19절)

“...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망망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

1. 공의와 사랑을 겸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통치하실 때에는 언제나 공의와 사랑을 겸하여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공평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간판은 좋으나 강박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역하는 유다를 하나님은 참다 못하여 공의로움을 손을 들어 풀 무릎에 던져 넣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풀무불에 던져진 유다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풀무불에서 전져내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공의와 사랑으로 행할 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 유다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한 것임이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온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태웠도라” (10절).

배역하고 깨을 능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당장 멸망시키자 마땅하겠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유다를 풀무에 넣었는데 ‘온처럼 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셨습니다. 온을 풀무에 넣는 목적은 찌꺼기는 태우고 순수한 온만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 중에는 순전한 온과 같은 신앙 인격자가 없기 때문에 온처럼 연단하신단 유다 민족 중에는 살아 남을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을 풀무에 넣기는 하지만 온처럼 찌꺼기 않고 조금 고생을 시킨 후에 전져 내시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죄를 범한 것을 생각하면 모두 죽어야 하였지만 그것을 넘겨 모든 민족을 이루기 하기 위하여 연단만 시키신 것임입니다.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이제 내 이름을 속되게 하리요 네 영광은 다 나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11절).
하나님의 백성이 다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유다 민족을 용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입니다.

2.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은 유다를 풀무불에서 끄집어 내신 다음에 “아름아, 이스라엘아”라고 안타깝게 부르시면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눈물로 권면하십니다. “나를 들으라”는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1) 유다 백성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 달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

①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주이십니다.
“... 나는 그나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12절).
하나님을 ‘그’라고 한 것은 비교할 자가 없는 절대자라는 뜻입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요점은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심판자로 믿는 데 있습니다. 창조주요 심판주이심을 믿지 못하면 바벨론 심판의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② 하나님은 섭리주이십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뻗나니 내가 부르민 천지가 일체하시니라” (13절).
여러분, 세상에 태양을 붙들 사람이 있습니까? 호르는 강물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 한 마디로 천지를 일체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세가 느린 60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나갔다가 보니까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때에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든 종을 보내주세요?”라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의 물이 좌우로 온 갈라져서 압축처럼 뿔었습니다. 그 사이로 60만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 갔습니다. 그 후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에 물이 가득 많은 때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래를 맡게 하고 요단강으로 저적지배 들어가게 하여 내리러온 물을 막으셨고 흘러가던 물은 멀리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는 하나님이 태양을 서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 때에는 태양이 10다나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대한 백성의 행보를 위하여서라면 천지까지 세우시는 절대 섭리자입니다.

③ 바벨론의 온에서 유다를 해방시킬 구원자이십니다.
“... 나 여호와와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라 그와 같이 갈대아처럼 일할 것이라 그를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곧 내게 다하였도 돌에 그것을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같이 행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가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14-16절).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나 여호와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른 것은 그를 통하여 유다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는 고레스 왕의 할 일을 예언하실 때에 유다 민족이 다 듣도록 공언하셨다는 뜻입니다.

④ 유다를 가르치시는 교사이십니다.
“...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망망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17절).
세상에 교사들이 많아요 하나님같이 가르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평안에 관계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환난에서 건지기로 계획하신 자들을 먼저 그 환난으로 가르쳐서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여 “내 말을 좀 들어다오” 하면서 부드럽게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18절).

(2)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받게 되는 복

① 평강의 복을 강같이 받았을 것입니다.
“... 만일 들었더라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8절).

평강이란 근심이 없는 평안을 말합니다. 세상의 복에는 근심이 섞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돈에도 근심이 있고 자식에게도 걱정이 있고 권세에도 두려운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에는 근심이 섞이지 않습니다. “평강을 강같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하여 주시고 둘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풍성하게 주시고 셋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새 것으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계속하여 풍성하게 새 것으로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유다 민족은 조상도 풍요로 좋고 관관도 좋으나 내세에 있을 이고 의로움이 없고 목의 험함이 무서와 같고 이마가 눈썹과 같이 풀무불에 밟이 아주 되었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은 것은 죽은 사람보다 의로워서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죽일 자가 없어서 전져내신 것임입니다. 그러

므로 이제라도 ‘나의 말을 좀 들어 달라’는 하나님의 권면이 얼마나 고마운 음성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평강을 강처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② 의로운 복을 바다 물결같이 받았을 것입니다.
“...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8절).

의를 바다의 물결같이 하신다는 말씀은 첫째로 옳다는 이들을 주시고(정의), 둘째로 옳게 사는 지혜를 주시고, 셋째로 때묻지 않은 재산을 바다의 물결처럼 주시고, 넷째로 권위와 권세를 바다의 물결처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③ 자신이 바다의 모래처럼 창성해졌을 것입니다.

“네 자신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같이 갈아서 ...” (19절).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본인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창성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할례루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고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부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고 주의와 재물이 그 집에 많으리라 그의 기가 영원히 있으리라고” (시 112:1-3).

이름이 끊이지 아니하겠다는 말은 권세가 끊이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사람이 인정해 주고 역사에 남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후세의 사람들이 계속하여 기억할 수 있는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3. 결론

우리를 살려 주신 하나님께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다오’라고 부탁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한 번 명령한 하면 천지를 세우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강을 강처럼 주시고 의를 바다의 물결처럼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후손까지 창성하게 주시고 이름을 만대까지 알 수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고마운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실천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과거는 용서받고 미래는 복을 받아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성록 목사

야곱의 사다다리

(창세기 28:10-22)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고향을 떠나는 야곱

야곱은 자기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3-15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은 의심의 여지없이 그분의 성명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역사와 신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은 의심의 여지없이 그분의 성명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역사와 신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야곱은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은 지금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비록 자기 아버지를 속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항상 동행하시리라 그와 다리를 가지든지 보호하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실로와도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실로를 들은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본 축복이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나야만 합니다. 따라서 야곱은 지금 당장 손에 잡힐 만한 현실적인 축복이 있다고 있었으면 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다(수 15).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 13:5).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신실하시며 진실하십니다. 오직 그만이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 꿈이 처음이었습다. 물론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대면과 체험을 통해 믿음을 갖기는 처음이었습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영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 28:16). 이전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고 누웠던 곳을 가져다가 그 위에 기를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이 직접 사랑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는 길

그러면 야곱이 꿈 사다다리의 꿈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꿈 속에서 본 야곱다운 사다다리 위에는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땅과 하늘을 오가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다다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십니다. 이 사다다리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언시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올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속이는 자요 이제 보면 겸손한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사다다리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 축복된 장소의 이름을 루스에서 벨레로 바꾸어 부릅니다.

땅의 축복에서 천상의 축복으로

세월이 흐른 후, 야곱은 가족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32장). 한 사람 야곱을 통해서 생긴 가족은 큰 무리를 이루었고 재산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올라가는 길에서 그는 모든 재산과 가족을 마음으로부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섰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자리에서 축복을 주시기까지는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씨름을 벌입니다.

이미 야곱은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미 오래 전 하나님은 벨레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그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야곱은 당시에 자신이 맹세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야곱은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0-21절)라고 맹세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맹세야말로 어리석기 그지 없는 맹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을 충족시켜 주실 때야 비로소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총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미숙했던 것입니다. 그는 의심하는 도마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의심과 영적인 미숙함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광배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계산하고 시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신성의 거룩함을 깨닫는 일에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결국 예수님을 향해 “너 주 나의 하나님” (요 20:28)이라고 고백했듯이, 야곱은 “당신 이 내게 축복하시라” 하신다면 가계 하지 아니하셨나” (창 32:26)라고 절규합니다. 비로소 그는 천상의 축복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계신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시달 평지의 바벨탑 주위에 도모던 사람들은 그 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했지만(창 11) 그러한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야곱이 잠든 올무밭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다다리를 내려 주셨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자신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니라” (사 46:1). 야곱이 경외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그 강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려움이 이곳이여 다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니라” (창 28:17).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가! 신실한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그날밤 기도하는 야곱을 만나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

외로운 밤의 기도

홀로 사막에서 맞는 첫날 밤,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약 9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다. 그는 자기 형제 야곱과 아이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집에 걸려 있을, 홀로 외로웠습다. 잠자리를 제공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부모님의 축복을 가슴에 품고 있던 했지만 현재 그의 형편은 험악한 한이었습니다. 별다른 반박이 없는 하늘 아래 누운 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것입니다.

사다다리의 꿈

바로 그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다다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본 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사다다리 끝 꼭대기는 하나님께서 서 계셨는데, 그는 그 모든 모습을 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세계 선교

하나님의 전하신 뜻 찾아가는 일꾼들 - 선교전도사

현재 우리 교회에는 여섯명의 선교전도사들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장자 선교 일선에서 자신의 한평생을 드릴 선한 일꾼들이다. 이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 선교전도사에 임명되어 사역한다는 것은 장자 전임선교사로 사역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길을 걷게 된 하나님의 부르심과 환경적인 인도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독자: 대학교 1학년때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거듭남을 경험했고, 그때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무언가 좀 더 헌신적인 일

을 감당하고 싶어서 35년 정도의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 때문에 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대학원 과정 중에서 혼란하면서 선교와 전도 쪽으로 마음이 계속 기울었고, 전도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수록 선교에 헌신하게겠다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평생도록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김병현: 사실 아직까지는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생각이 잘 자리잡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좀 더 효과적으로 소임받

고자 신학교(총신 신대원)에 전학하게 되면서 목회보다는 선교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고 지금 그 길을 따라 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건강이 허락하는 젊은 시절만큼은 열악한 지역에 가서 선교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석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만7세때 아버지(이준교 선교사)를 따라 예루살렘 가서 그곳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

이 받았습니다. 사실 대학부터 신학교로 전학한 생각도 있었지만 일단 기계공학을 전공한 후 신학교(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원)로 전학, 졸업했습니다. 현재 신학석사과정 중은 본인이 아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 때를 각오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병웅: 저도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고2때 목회를 위한 헌신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수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총신 신대원에 진학했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아프리카 우간다를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오태규: 할아버지 때부터 내로남불은 신앙의 분위기가 젖어서 큰 감동없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고3때 어머니의 기도

로 힘을 얻어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지금은 총신 신대원에 다니면서 무슬림 지역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 교회에서 각자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조독자: 외선부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팀을 위해, 선교연구원에서는 정은희 선교사님이 하시던 일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김병현: 외선부에서 중국, 우즈베키스탄팀을 위해서 섬깁니다. 다른 나라를 담당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주로 주 2회 정도 이들을 심방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지금 10주 과정으로 총회 선교센터에서 진행되는 MTI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민병웅: 외선부 봉공팀입니다.

오태규: 외선부에서 스페인카타공찬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 말씀해 주십시오.

조독자: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인도에서 캄보디아 사역을 통해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일, 오지로 나아가고 교회 개척을 하는 일, 그리고 팀사역을 하는 일 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병현: 현지인들을 위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정경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앞으로의 사역이나 사역방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현재 하고 있는 신장공역을 끝까지 맡으면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척사역과 도시에서 진행되는 지도자 양육사역, 문화사역 등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태규: 가장 절실한 사역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사역과 신학교 사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함종공교'라고도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역을 'Second Line Mission(제2선 사역)'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 집사님들.

전국일꾼 양성

시행으로 이루어지는 시행부·소년부

'장애인'의 반대말을 아십니까

김 동 석(목사, 사랑부 지도)

'장애인'의 반대말을 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즉각적으로 '정상인'이라고 떠오르는 사람은 이미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편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장애인'의 상대적인 의미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그 사람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형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총회교회에서의 장애인 교육이 어느덧 10여 년의 세월을 지나 11년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쌓여진 연륜만큼이나 우리 교회의 장애인 교육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성장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의 현장에서 있는 사역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한 모습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 교육을 시행하면서 가장 마음이 답답한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관심의 표현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방법론적인 접근과 정책적인 시행(특수 교육 시설의 확충, 장애인 고용의 증대,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등)의 앞에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상호 접근의 문제일 것입니다. 장애인의 장애를 편견으로 보지 않고, 일상의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장애를 생활 속에서 함께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마음, 분명히 비장애인보다는 훨씬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을 기꺼이 도우려는 자세 등등은 결코 제도적 강압이나 규범적인 부담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며,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나누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사랑부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기대를 가지고 금년 초부터 소년부 학생들과 함께 교환수업의 형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일에 불과 1시간 남짓하는 시간으로, 그것도 이제 겨우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무엇을 얼마나 얻을지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정기적인 방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랑부 학생들의 비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일깨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소년부 학생들과 사랑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분명히 아름다운 천국전치의 작은 모형이라고 믿습니다.



친구가 되고 싶다

진은이(소년부 학생)

"다음주부터 사랑부가 가니까 예배 마치고... 뒤로 나뉘고 주세요"

선생님의 이 말씀에 나는 조금 겁이 났다. 가끔 사랑부 말을 지낸 때 그들의 이상한 모습을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빠른 결무으로 지나쳐 가곤 했기 때문이다. 주모님께서는 사랑부에 가서 그들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기회이니 다녀오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솔직히 가기 싫었다.

드디어 주일이 왔다. 사랑부에서 2부 순서를 함께하게 되었고 나와 면회 친구들은 왠지 싫은 마음을 누르며 첫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들(장애인들)이 싫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받은 딸인가를 감사하게 되었다. '사랑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태어나냐? 하나님은 정말 저들도 사랑하시나? 왜 저렇게 만드셨지? 참! 건강하게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사랑부에 봉사하시는 선생님은 사랑부에 있는 장애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며 예수님 때문에 삶의 기쁨을 갖는다고 하셨다.

사랑부 방문 3주째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이 생겼다. 그들 장애인도 우리 못 차하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

감사와 사랑 실천 배워

박 현 정(소년부 교사)

칠없는 어린이들, 아픈은 어리다 싶은 소년부. 하지만 어른 못지 않은 사랑의 감정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게 해 준 곳이 사랑부입니다. 특한 나이나 유사라기에 되고 마는 면회회실이라서 가끔 질사문이 오셔서 조용히 하라는 말씀까지 듣는다는. 하지만 사랑부에 다니는 소감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고사나 나 자신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전에는 사랑부가 무서고 싫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한 작품뿐입니다. 함께 살아야 해요." "더 자주 사랑부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도와야 하나요? 함께 배워볼 수 있어요." "찬양합니까? 그 언니, 오빠 사랑해요." "저도 함께 진지하게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자신이 부끄러워요."

월세 없이 카페 높은 소감들이 "정말 일개" 하는 의식이 부끄러움 정도로 그들의 눈물들은 그칠일이 많았어. 매우 교환수업으로 두개반씩 사랑부에 반갈아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다나은 소년부 어린이들의 반응은 소감자 제일 먼저 나타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것이 두번째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함께 사는 우리 어린이를 가슴에는 관심사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랑이 있다. 미래가 보인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엄마!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구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 복희(집사, 11교구, 할렐루야 찬양대)

셋째 35도를 오르내리던 무더운 여름날 오후 호주에서 유학중인 딸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보통은 밤 10시 넘어서 피차 한가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던 터였기에 대낮에 걸려온 전화에 조금은 놀랐다.

“엄마! 저 유경(큰딸)이에요. 오늘 지은(둘째딸)이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 했어요. 지은이가 재일이 있었어요. 대학생들이랑 어른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은이만 고등학교생이었어요. 지은이 바뀐 거예요.”

“엄마! 저 지은이예요.”

“그래? 지은아 수고했구나. 축하해”

“엄마!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구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나는 “그대 지은아, 하나님께서 해주셨지. 참 감사하구나. 고마워, 기쁜 소식 전해줘서. 오늘 아침 얼마도 기도했고 이모한테도 전화해서 너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었던다”라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대중 그런 내용의 전화를 끊고 한참 지난 지금도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숭구스럽고 이런 말에 또 뿌듯기 그지 없다. 정말 기쁜 순간에 왜 하나님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적어도 멋진 믿음을 가진 엄마라면 그런 순간에 첫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든지 “하나님께 영광돌리자구”라든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생각났어야 하지 않을까.

딸의 수고를 먼저 잘했다고 칭찬하며 잔뜩 호들갑을 떨던 내게 열여덟살이 채 안된 어린 딸의 “엄마!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구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라며 한 말이 이토록 나를 감동시키다니, 그리고 지금 이토록 나를 뿌듯하게 하구나.

지금 내 눈시울이 뜨거우리만큼 감사하고 내 영혼이 기뻐지는 이유는 콩쿠르의 결과 때문이 아니고 어린 딸이 간직하고 있는 그 예쁜 믿음과 그의 법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 때문이다.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면서도 수요일에 예배때 반주자로써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딸의 모습이 대견하면서 또 안쓰러워서 마음 속으로 “고3 수험생은 좀 빼주지 않겠어?”라고 생각했던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집사인가. 법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장세우지 못하는 내 믿음이 참으로 알랑하고 가소롭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그분의 아들과 나를 맞아주셨다.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신 채로 ...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 ... 그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리라. 법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조차 ...

교정전도의 차량봉사자
회원들의 날이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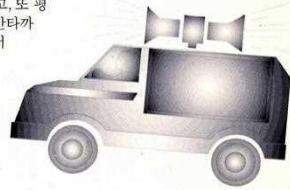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도소를 방문하여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정전도회는 차량봉사자의 수고가 없는 원활한 사역을 기대하기 힘든 부서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사역을 가는 춘천소년원인 경우 6명이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청송교도소와 같이 먼 거리에 있는 곳을 방문할 때는 2명이 함께 동승하여 가면서 교도소 운전권을 하며, 이외에도 각 교도소마다 담당자들이 있어 일정표에 따라 운전 봉사를 하고 계신다.

한번 사역을 가게 되면 회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재소자들과 함께 나눔 음식과 성경책, 일반 도서, 사역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2-15인승의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야 한다. 그래서 봉사자 가운데는 교정전도회 사역을 위해 2종 면허가 있으면서도 1종 면허를 다시 취득한 분도 있다. 그리고 회원인 부인을 교도소까지 데려다 준다는 생각으로 따라 갔다가 회원들이 재소자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의로 봉사하는 것을 보고, 또 평소 기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이 봉사하는 부서에서 이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을 모아 봉사하는 분도 계시다. 또 재소자들이 복음으로 교화되기를 바라시며 오랜 세월 동안 헌신하시는 저도 막양덕 전도사님과 여회 회원들을 뵈었다는 일일

으로 어렵게 휴가를 내가며 이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이들은 경복 청송, 강원 춘천, 충북 천안 등 항상 장거리를 운행하기 때문에 늘 무사고 안전 운행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상담에도 임하고 찬양 봉사도 해야 하는 등 한 번 사역을 다녀오면 육신에 심하게 지칠 때가 많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운전대를 잡아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셔서 무사고 운전을 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한 순간의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여 범죄의 길로 들어서 제약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재소자들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교화하는 귀한 사역에 자신들을 쓰임 받는다는 것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바라셨다.

(이흥호)



보람없는 우리들을 ...

관사회 24시간 연속기도를 감당하며

김용순(관사회 회장)

하나로 엮여지는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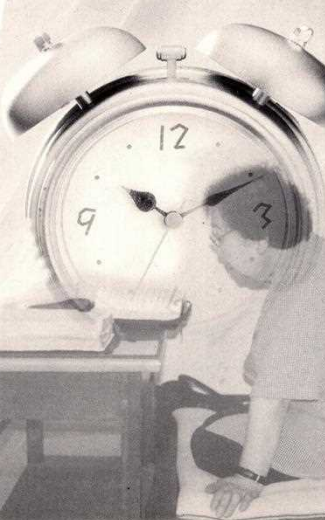
우순성(관사회 서기)

24시간 연속기도를 우리 관사회에게 맡겨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정된 기도시간 차가 되어 그 자리에 앉고 보면 태백 받고 구원받고 특별한 주님의 사랑 받고 지금까지도 생명의 주님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늘 눈물이 쏟아집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그때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깝게는 깨지곤 합니다. 어떤 날은 거의 두 시간 동안은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눈물로 온통 밤박이 될 때도 있었지요.

기도 순서표 받는 날, 내가 맡은 날을 달력에 크게 표시해 놓고 행나아 있을까봐 매우 열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대표하여 24시간 연속기도에 참여하는 사명이 중하여서 밤이 깊어지면 불평은 못하였습니다. 그냥 그 순서에 제 이름이 있는 것이 감사하지요.

이제 은혜, 원로관사님들이 건강이 나빠져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좀더 나이 들고 거동하기가 불편해져서 일하지 못할 때가 곧 오겠는데 저를 비롯한 시무관사님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욱 힘을 내시고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십시다. 보람없는 우리들을 관사로 삼아 주시고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 주셨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관사의 본분을 다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관사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나 24시간 연속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24시간 연속기도는 우리 관사님들의 특권인 동시에 기쁘게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이다. 연속기도를 통하여 우리 관사님들의 마음과 뜻과 사랑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기도의 동역자로서 또는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데 하나로 엮여지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

기도실에 들어서면 우선 세상을 향하였던 복잡한 마음이 정돈되며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고유한 기도시간에 우리 마음은 지식으로 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정성과 헌신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열납되는 것을 체험하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 속에서 젖어들게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와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가슴에 품고 뜨거운 기도를 하는 관사님들의 기도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져,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종현교회를 향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는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마응봉사를 다녀와서
주님 주신 달란트

어 해 옥(집사, 8교구)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약 2:8)**

지난 여름 이정우 장로님과 김순실 부회장이시 이끄시는 우리 교회 이미용전도팀은 각 교구의 농어촌 봉사자를 찾아다니면서 섬김과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동봉사주 하였다. 이제 그 드넓은 날씨도 초가을의 으뜸장에 적어 제법 서늘하게 다가오고 있다.

8교구가 농어촌 전도인원 충당 연거군전도교회로 갔을 때의 일들이 생각난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난 다시 태어나고 다시 거듭나고 말았다. 전도교회 미용전도팀이 오셔서 봉사를 하셨었기에 갖는 마음으로 그곳을 가게 된 것이다.

어느새 신현리 마을에 세워진 신현교회에 도착하니 할머니 여러분이 와 계셨다. 예배를 드린 후 우리는 부지런히 알지마를 두르고 제법러게 할머니들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며 드리며 말씀을 전하였다. 어떤 머리를 보며 일으로는 열심히 감사하는 그분들을 보며 어느새 열심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었다. 아무런저 주시며 고맙다고 웃으시는 그분들의 주름진 얼굴 속에서 어머니의 정을 다시 볼 수 있었고 다정하게 잠은 못이 박힌 손 마디마디는 지나온 삶을 감당 할 수 있게 하였다. 주님, 우리는 이분들을위해 썬을 뿌리

리 나갔지만 댁하시고 거주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심을 압니다. "올며 썬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시 126:6)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피곤함도 모른채 열정을 다하여 옥도에 뿌리지는 씨앗이 되길 빌며 정성을 다했다.

베통처럼 둘러싸인 산 밑에서 오묘하고 순박하게 살아가시는 그분들이 주님을 영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영혼을 더 구하기 위해 우리 20명은 열심을 다하여 피마를 하고 머리를 자르며 최선을 다하였다. 가는 곳마다 다시 오길 바라는 그분들을 보니 거쳐 오지 않았음을 알았다.

떠나오는 길에 한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났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84살이 된 이 할머니는 누가 거둔대...?" 눈물을 글썽이던 그 할머니와 그 할머니를 낳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뒤로하고 떠나오는데 내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오는 것 같은 설움이 복받았다. 또 돌아보면 헤어지는 말걸음을 못내 아쉬워했다.

주님, 지에게 미용기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이 얼마나 행한지 감사 베풀어오르도록 감사드립니다. 오는 길에 장로님들의 간증을 듣고 감사 편사님, 집사님들과 의견들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도 가짐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산 밑 밑발에 들죽과 한송이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한송이를 더욱 사랑하시겠지요.

나의 새벽기도와 2주년
고통의 시간 지나자 감사와 사랑의 빛이

박 영 선(집사, 7교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과거의 시간들 속에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갈등의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사실이며 언젠가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리라 생각하며 믿음없이 교회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

다. 김성관 목사님이 오셔서 막연하던 진리에 강한 확신이 서며 새벽기도회 참석을 결심하기 시작한 것이 개인적으로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피로, 졸음, 우유, 잠하지 않는 평안... 이로써 새벽길이었습니 다. 나 자신은 변해가는데 그대로인 상황. 아니 사실은 내 안의 어두움이 조금씩 벗어지며 내 자아가 무너져가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날부터인가 거듭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은 지독한 죄인이며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 다.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충헌교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의 요한일서 말씀, 믿음업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IMF가 시작되면서 기쁨없고 만만치 않아 미안한 마음에 간절히 기도 하니 기쁨없음은 걱정 안해도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회를 통해 정말 충헌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주일엔 많은 사람의 눈을 거슬리게 하는 복장의 젊은이들이나 주자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예배시간에 졸다가 국수만 드시고 가는 사람들을 이었지만, 모두 충헌강단에서 날마다 선포되는 귀한 복음에 결국은 거듭나 저 천국에서 만날 사랑하는 지체들이 확실하기에 충헌 교회 모두 아름답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평일만 해도 활활한 우리 원로목사님, 날마다 종종 겸손으로 부추겨 고인들을 도우시는 전도사님들, 모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짐없이 저를 대우고 새벽길을 누비시는 금옥연 집사님, IMF가 시작되면서 기쁨없고 만만치 않아 미안한 마음에 간절히 기도 하니 기쁨없음은 걱정 안해도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엄중할 않아차릴 수도 없는 세미한 손길로 도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이 땅 위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주권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빌 3:21).

환경이 우리 눈 앞에 펼쳐졌다. 뿐만 아니라 상하가 넘은 할아버지가 혼자 누워서 눈만 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보는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물로만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불러 기도드리고 온 집안에 싸여 있는 오물과 옷가지를 치우고 축석에서 작은 정성을 모아 전달하였다. 그곳에는 거동할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많으셨는데 입고 모시고와 의료진도 팀의 치료를 받으시게 하였다. 작년에 왔을 때만 하여도 처다도 보지 않고 말도 못하게 하였던 퇴직 교장선생님을 다시 만났는데 금년에는 3일 연속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침을 맞고 감사헌금까지 하였다. 그 눈동자는 어느새인가 예수님의 눈동자로 변하고 있었다.

네 명의 봉사팀은 경로 초대 잔치에 내어놓을 음식 180인분을 준비하기에 눈길 돌릴 여유도 없이 보냈다. 오전에 시작한 경로 초대 잔치에 오신 분들로 하여금 헌신적으로 애쓰는 우리를 보며 왜 우리들이 산간벽지에까지 와서 자신들에게 봉사하는가를 생각하게 하였으며, 우리들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할 때마다 "예수 믿고 건강하시고 천국 가세요"라고 권하였다.

전도사님들은 주님들을 만나다기보다는 말로만 찾아가려 했다. 그 길은 멀고 험하였으니 "전도는 하나님의 부탁이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지상명령이며 어떠한 환경에도 전도하라"는 목사님의 격려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고추를 따며 다듬으며 토속 신앙에 대를 이어가고 불교, 유교를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주민들에게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에 온 힘을 다했다.

전도의 결실을 맺는 집회 시간에 맞추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낮에는 사람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30여명의 조그마한 분당에 172명이 보조의자가 모자라 바닥까지 앉아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숙연해졌다. 그들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임재하셨음을 볼 수 있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며 목사님과 침례전 그리고 식수까지 포함해 행기신 전도대장을 칠교도 밤 10시에 버스에서 쏘며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하리라 다짐을 하였다.

그 길은
멀고 험할지라도

정 운 환(집사, 6교구)

태어나서 시집까지 갈 때까지 쌀 두 마를 먹기가 힘들고 찹쌀 산으로 둘러싸여 하늘을 볼라치면 고개를 치켜 세워야 되는 화천군의 삶의 애환이 구구절절이 서려 있는 곳, 고생은 자기 대에서 그치자고 2세대를 도회지로 내보내 정, 장년층은 물론이고 어린이 하나 구경할 수 없는 마을. 62세가 제일 막내라는 어르신들의 낡두루를 받아들이기에는 현실과의 동떨어진 이질감마저 느껴지는 곳, 강연도 오지 정선의 신현교회에 31일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도착하니 10시 30분. 서울에서의 빔방음이 가늘어져 안개비 사이로 내려다보이는 교회의 종탑과 파란 지붕이 정답고 고즈넉하게 느껴진다.

3인을 1개조로 하여 10개조로 편성하여 6개 마을 중 신자가 하나도 없는 3개 마을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며 썬을 뿌렸다. 여기저기 벼얼 띄엄 띄엄 떨어져 있는 집을 찾아 가다가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고추를 다듬고 있어 같이 들으며 전도하기도 했다.

어느 허름한 집을 찾았을 때 소스라치리만큼 놀라운



지체들 소식 / 나를 바꾼 한마디

지체들 소식

유아부

금빛 날개와 꼬깔모자

9월 19일 찬송가부르기회를 했습니다. 금빛 새 날개를 달고 꼬깔모자도 쓰고 성구가 새겨진 피켓도 들고 여러 선생님들의 평소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서 더 재미 있었어요. 4살들은 어눌하지만 귀여운 모습으로, 5살들은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유아부 1년과 2년의 차이를 느끼기도 했지요. 어른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집에서 엄마들이 얼마나 애쓰셨는 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뜻도 모르는 찬송을 부르면서 저절로 그 의미를 깨닫고 은혜 받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지체롭게, 찬송도 잘하게 키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민호 통신원)

유지부

부도님을 공경해요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우리 어린이들은 유치부실을 가득가득 메웠어요. 오늘은 제5개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배웠는데요. 저희를 모두 앞으로는 더욱 더 아껴, 엄마 말씀도 잘 듣고 공경하라고 마음 먹었답니다. 유치부에서는 심방의 달인 이번 9월에 이어나가오는 10월에 반별 찬송부르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받으시길 원합니다. (한유리 통신원)

초등부

팀별 전문 사역 실시키로

행사들이 찬양운영팀, 시청각운영팀, 환경미화팀, 행사운영팀, 발전연구팀, 지원봉사팀, 이렇게 5개 팀으로 특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찬양을동팀은 주일 아침 찬양과 율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팀으로 아침 일찍 나와 예배 전에 어린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예배드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준다. 시청각운영팀은 매주일 컴퓨터와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예배 순서와 그날 배운 성경공부를 스크린과 음향효과를 이용하여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말씀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미화팀은 예배실과 교사실 주변 환경을 정리정돈하여 쾌적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행사운영팀은 매월 실시되는 행사를 중점적으로 주관하여 진행시키는 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더 효율적이고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는 행사를 위해 애쓰고 있다. 발전연구팀은 초등부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더 좋은 점을 찾아내서 발전시키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팀이다. 지원봉사팀은 모든 행사에 부족한 인원과 재반사향을 지원하는 곳에 지원한다.

이번 달에는 그동안 여러 번 거론되었던 어린이들의 지각문제에 대하여 특별활동팀이 좋은 개선방법을 내놓았다. 어린이들에게 지각에 대해 글자하기를 하든지 표어를 만들어서 예배실에 붙여 놓고 지각하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지각하지 않고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월 한 달 동안 찬송하고 11월부터는 지각하지 않고 전원이 출석하는 좋은 따로 시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미숙 통신원)

중등2부

'골든 벨을 울려라'

중등2부에서는 학습평가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이번 3분기 학습평가도 종전의 획일적인 지필평가에서 벗어나 '골든 벨을 울려라'라는 제목으로 반별 대항전을 실시하였다. 중간 중간에 관포마임과 음악을 곁들인 다양한 출제방식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평가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반별 팀워크를 강화하였고 학생들은 시험을 떠났다는 기쁨과 고집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평가에 참여하였다. (손은경 통신원)

장년2부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 묵상하고 암송

장년2부는 지난 19일에는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하였다. 12일 예선을 거쳐 15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앞에 나와 낭랑하고 짜뽕짜뽕한 목소리로 시편 22편의 31개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여 듣는 이들로 하여금

나·를·바·꾼·한·마·디

성찬을 통해 나를 바꾸신 손길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김형 조영남(부)

우리는 얻고 싶은 무언가를 위해 많은 대가를 치른다. 좋은 차나 집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유명한 대학이나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에 상당한 것을 주어야 한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나의 나쁜 것을 자라قم 위해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은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하며, 나는 나일뿐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면 삶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어 놓고 내 맘대로 즐기며, 그래서 교회는 다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떠들어대던 나에게,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는 상전직.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

“주님의 삶과 피 ... 십자가 ... 값으로 산 것 ... 참된 사랑은 ...” 여러 생각이 마구 교차하여 맥과 포도주를 받은 내 몸은 굳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날 위해 값을 치르셨다니 ... 말할 수 없는 눈물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삶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됨을 기뻐하며 인정한다. 나를 값을 치르시고 사셨기 때문이다. 당연히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충성하는 신실한 종이길 원한다. 죄인이 만유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하루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기를 원한다.

“주여 오날도 주의 선한 도구가 되는 종으로 살게 하소서. 값을 치르시고 사신 내 몸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2000년대를 향한 장년1부

2000

향전철

(집사, 장년1부 교사)

“장년1부” 불혹의 40대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배우며, 힘써 일하며, 끝까지 전하기를 실천하는 곳.

가정교(가장) 교회와(직분자) 사회(직장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로 장년1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장년1부는 말씀 중심의 생활을 위해 매주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 40분까지 교육관 407호에서 지도 박형용 목사님(협동목사, 합신 신약학 교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으며(다음은 데살로니가) 말씀을 생생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례를 들어가면서 경적인 동시에 동적인 훈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장 이병욱 장로님을 중심으로 58명의 교사와 361명의 학생(99. 5 현재)이 훈련원체가 되어 매주일 신실회전 완역과 생일 축하를 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수련회와 성경암송대회, 성경퀴즈대회, 찬송가부르기

회 등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와 개인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할원 방문을 통하여 이웃 사랑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장년1부는 제 구실을 하게 될 것이며 2000년, 3000년이 오더라도 말씀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열심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타부서에서 봉사하면서도 제 시간에 참석하여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름과 그들의 기도예를 기록하여 직장에서도 집에서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아름다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40대 성도 여러분! 장년1부에 와 보십시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2000년을 맞이하십시오.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전 학생들과 교사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자신들 앞에 놓인 십자가를 달게 되고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였다. (장년2부 통신원)



알림

1. 구제헌금

2. 학습세례식 안내
제5차 학습세례식이 10월 24일에 거행됩니다.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개종을 원하시는 성도께서는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10월 3일(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1. **장로 화요새벽기도회**
 - 일시: 28일(화) 새벽기도회 후
 -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회**
 - 일시: 27일(월) 새벽기도회 후
 - 장소: 교육관 109호
3. **주일요우회기도회**
 - 일시: 오늘 15:00
 - 장소: 감리리홀
4. **교구위원회 월례회**
 - 일시: 오늘 15:30
 - 장소: 국제화회의실
5. **권사 제4회(수) 월례회**
 - 일시: 29일(수) 1부예배 후
 - 장소: 사목부실

남녀전도회

1. 바울 3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는 금요일 이후
· 장소 : 교육관 205호
2. 바울 4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는 15:00
· 장소 : 임마누엘홀
3. 바울 9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는 15:00
· 장소 : 교육관 414호
4. 바울 12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는 15:00
· 장소 : 교육관 314호
5. 에스더 10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는 금요일 이후
· 장소 : 교육포모강장
6. 에스더 17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는 금요일 이후
· 장소 : 안연홀

7. 루디아 12지회 월례회
·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 장소: 교육관 308호

결론

1. 김세준 군(김주은 씨, 재갈수복
씨의 아들, 19교구)과 이미진 양
(이종길 아들, 김수자 집사의 딸,
2교구) / 30일(목) 12:00 갈릴리
홀
2. 정의웅 군(정창진 집사, 이광자
권사의 아들)과 조소희 양(조영
길 목사, 박순혜 사모의 딸, 19교
구) / 30일(목) 14:00 갈릴리홀
3. 김우형 군(김영길 집사, 이정숙
집사의 아들, 7교구)과 김보성
양(김은영 씨, 김정옥 씨의 딸,
19교구) / 10월 1일(금) 13:00 갈
릴리홀

4. 임찬용 군(조영숙 권사의 아들, 15교구)과 김연정 양(김용우 목사, 천축사 사모의 딸) / 10월 2일(토) 15:00 복지관
5. 박준호 군(박은영 성도, 이춘자 집사의 아들, 11교구)과 윤나현 양(윤방희 씨, 신현래 씨의 딸) / 10월 2일(토) 16:00 동대문 삼우회홀(3673-5000)

전화번호 변경

1. 권정자 집사
561-7968
2. 김원일 집사
0342-736-9200

◆ 10월 주일 및 수요일 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 예배 (장로)					청양 예배 (만수읍)	수요 예배 (군사)		
		I 홍	II 원	III 진	IV 진	V 현		I 영	II 화	
10	3	이	최	김	김	조	고	송	I	II
	10	김	배	김	송	남	고	송	김	이
	17	김	이	김	김	남	정	송	김	이
	24	송	진	김	조	이	정	송	김	이
	31	안	차	유	조	이	정	송	김	이

새 · 가 · 족 · 을 · 화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03	박성봉	19	고등부		1309	김성호	19	청년1부		1315	박현아	19	청년1부	
1304	장경신	3	루디아	윤효남(2)	1310	여영우	19	청년1부		1316	김태희	19	청년1부	
1305	소병권	9	베드로	이진규(7)	1311	이기현	19	청년1부		1317	강희경	19	청년1부	
1306	여승준	13	청년2부		1312	송병순	3	소망부	윤순효(8)	1318	이우현	193	고등부	
1307	한영희	13	청년2부	조복면(13)	1313	이신휘	3	청년2부						
1308	정지연	19	청년1부		1314	박낙규	15	한 나						

* 출석교회인 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장칼럼

완전한 성도, 완전한 교회

김 천 채(장로. 영어교육부 부장)

오늘날 우리는 이 땅 위에 참으로 많은 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봅니다. 그 다양한 교회, 각색의 교인들을 대할 때마다 분명히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반면, 또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의 소리가 납니
다. 그러나 조용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왜 그리 말이 많은지 마음
상하고 아플 때 주님은 이제도 그 해답
과 크신 위로를 주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느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0-22)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인 교회, 이 땅의 교회는 미완성의 교회요 지어져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 우리의 다듬어지고 깎아지는 소리는 어찌면 불가피하고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하니이 친히 거룩

하게 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쉬임없이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거친 모습은 다듬어지고 그 소란했던 성전 건축은 끝나서 우리 모두 완전한 성도, 완전한 교회가 되어 거룩한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주를 찬양할 그때까지!

섬 · 기 · 는 · 분 · 들

■ 원로목사 김창인

- | | | | |
|---------------|---------------|---------------|---------------|
| 시무리 | 김의철
제2교과부장 | 조근근
검정 | 김은호
교과부장 |
| 윤필식
4차교과부장 | 김기생
교과부장 | 김경원
학사부장 | 유기건
전공부장 |
| 마석락
교과부장 | 노광현
교과부장 | 오진규
기초교과부장 | 정하옥
기초교과부장 |
| 손동운
중등부부장 | 윤원희
교과부장 | 최희민
제2교과부장 | 박승준
제2교과부장 |
| 이병학
제2교과부장 | 송기복
봉상교과부장 | 강은진
중등부부장 | 강도봉
중등부부장 |
| 엄필식
중등부부장 | 최희현
제2교과부장 | 이훈
선생리부장 | 남단수
제2교과부장 |
| 오정현
중등부부장 | 유한장
제2교과부장 | 장성석
제2교과부장 | 김영걸
제2교과부장 |
| 서동석
중등부부장 | 최종환
제2교과부장 | 김기규
제2교과부장 | 최두길
제2교과부장 |
| 문용구
봉상교과부장 | 조인재
제2교과부장 | 유만복
제2교과부장 | 김재명
제2교과부장 |
| 김진재
제2교과부장 | 이창호
제2교과부장 | 차득득
제2교과부장 | 김재명
제2교과부장 |
| 박익성
제2교과부장 | 김정남
제2교과부장 | 이종석
제2교과부장 | 성경수
제2교과부장 |
| 이종국
행정부장 | 유철원
담당부서 | 김미아
제2교과부장 | 이희영
제2교과부장 |
| 박민진
제2교과부장 | 김기관
제2교과부장 | 이병욱
제2교과부장 | 안동욱
제2교과부장 |
| 이인상
제2교과부장 | 최희환
제2교과부장 | 임무부
제2교과부장 | 이종일
제2교과부장 |
| 최기복
중등부부장 | 이승철
기초교과부장 | 김동배
제2교과부장 | 전홍욱
제2교과부장 |
| 전홍렬
제2교과부장 | 이정우
제2교과부장 | 김관용
중등부부장 | 황왕일
제2교과부장 |
| 은철
제2교과부장 | 한승규
제2교과부장 | 김기태
유아부부장 | 김준권
제2교과부장 |
| 김영수
제2교과부장 | 장동희
제2교과부장 | 김기진
유아부부장 | |

■ 위임목사 김성관

- | | | | | | |
|--------|--------|-----|-----|-----|-----|
| ■ 부목사 | 이홍성 | 김희수 | 이종대 | 박경한 | 김동식 |
| ■ 집사 | 김필수 | 전영환 | 김재철 | 이승수 | 정갑일 |
| ■ 장로 | 장현민 | 조문찬 | 조철수 | 김광호 | 차병준 |
| ■ 권역장 | 김병태 | 김연식 | 권상진 | 서광진 | 이승하 |
| ■ 집회서 | 이준경 | | | | |
| ■ 협동목사 | 윤영택 | 박형용 | 노봉민 | | |
| ■ 선교사 | 이준교 | 안석필 | 김영태 | 정호은 | 제니 |
| | 이혜영 | 수민 | | | |
| ■ 감도사 | 박인기 | 염현일 | | | |
| ■ 영전조사 | | | | | |
| ■ 장로 | 현경남 | 장영자 | 임태주 | 김정자 | 한영준 |
| ■ 배속인 | 최희재 | 손미희 | 송창하 | 신동자 | |
| ■ 유인속 | 오정호 | 오인숙 | 김옥륜 | | |
| ■ 김영록 | 김복춘 | 김연식 | 계선화 | | |
| ■ 고교전사 | 신. 박민영 | | | | |

예배안내

주요역세		
구분	시간	장소
주요역세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하계, 하계수업제)	본당
	IV 오전 1200(하계수업제)	본당
	V 오후 300 (하계수업제)	본당
English Service		900 a.m. 목회적 기술자(Care Staff)
현인역세	오후 500	본당
수요역세	1.오전 1100 (수요 7:30)	본당
금요일역세	오후 730	본당
주말기도회	오후 440	본당